

大學生의 意識構造

崔 載 賢

(西江大 社會學科)

1. 大學과 社會

大學은 社會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社會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社會에 일정한 자극을 준다. 體系理論的 觀點에서 볼 때 大學은 그 자체 하나의 (下位)體系이며, 大學을 둘러싼 社會 일반은 이 體系의 外部에 있는 環境이다. 體系는 環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음과 동시에 그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또한 體系가 하나의 單位로서 自律性을 지니게 되면 될수록 體系와 環境 사이에는 뚜렷한 境界가 設定되는 것이다. 이 境界를 넘나들면서 體系와 環境間에 에너지, 곧 情報가 交換되는 가운데 社會는 더욱 分化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大學과 社會間의 관계를 보는 論者의 意識 속에는 어느새 이러한 體系論的 觀點이 자리잡고 있다. '大學과 社會'라는 말 자체가 이를 반영해 준다. 오늘날의 大學은 量的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악, 생산하고 있는 人員과 情報 때문에 社會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되었다. 또한 社會 자체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해 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변동을 先導해 간다는 점에서 大學의 社會적 기능은 그 이전 어느 社會에서보다 더 커졌다. 두말할 여지 없이 大學은 高級人力을 교육하여 社會에 배출하는 그 特有的 기능 때문에 현대 산업 社會

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로 올수록 노동력의 教育 年限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公教育 개념의 확산 덕분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中·下位階層으로까지 점점 넓어져 가는 추세이다. 우리의 경우는 知識과 才力을 추구하는 儒敎的 身分社會의 遺風이 대학교육에 대한 需要를 늘리고 있고, 그 결과 특히 '80년대에 들어서서 大學과 大學生 수는 수적으로 상당히 팽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學 진학 기회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누적된 再修生數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上昇하려는 노동 계급의 의식 상태에 비추어 볼 때 大學과 大學生 수는 '90년대에 들어서서도 持續적으로 增加할 전망이다.

大學이 팽창한다는 사실은 高等教育에 대한 社會적 수요의 반영으로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어찌 생각해 보면 사치성 소비와 오락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知識과 교육 기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네 儒敎的 傳統과도 잘 어울린다. 社會의 모든 구성원이 더 많이 배우려 하고, 가능한 한 高級 知識人으로 成長해 가려 한다면 그러한 추세는 社會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大學이 마땅히 성취해야 할 質은 체제

두고 量的으로만 성장해 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오늘의 국제 사회가 생산, 유통, 情報 및 人員에 있어서 점점 더 交流가 활발해지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質의 提高 없는 量만의 肥大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大學이라는 部分社會는 高級 知識人을 훈련하여 사회 각 부문에 제공한다는 그 본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生産的 勞動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遊休勞動力 또는 豫備勞動力을 包括하고 있는데, 이 점이 대학을 자칫 浪費의 온상으로 만들어 갈 소지가 있다. 4년간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대학교육을 받았음에도 졸업 후에는 실업자가 된다가나 자기 전공 분야에서 쓸모있는 지식을 생산해 내지 못하는 대학 출신들을 量産해 보았자 그러한 대학은 오히려 勞動人口의 짐이 되고 사회에 寄生하는 존재가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교육의 內實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드높아 가고, 先發工業國들에 비한 대학 인구의 相對的 過剩化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大學이 그 말은 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기대되는 質的 水準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하고 재정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대학을 구성하는 人的 要件인 학생, 교수, 사무직원들의 의식이 산업 사회에 알맞도록 합리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60년대 大學生의 意識構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는 사회 자체가 급격한 변동의 渦中에 처해 있는 가운데 상당히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생은 민족의 엘리트로 자처하며 사회 여론의 호응과 인정 속에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 전반에 대해 발언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아직 대학생 수도 소수였고, 고등교육의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또 기성 세대 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말과 행동은 어느 정

도까지 사회 여론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여론 주도 세력으로서 학생 집단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1960년 4월의 학생 혁명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自由黨政權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그 家父長的 專制에 대항한 학생들의 示威는 마침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民衆의 힘에 의해 정부가 무너지는 기록을 세웠다. 물론 당시 시위를 처음으로 주도한 것은 대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시위 사태가 본격적으로 파급되어 감에 따라 시위대의 핵심 세력을 이루었고 그만큼 희생도 많이 겪었다. 비록 실제로 정권을 인수하여 현실 정치 세력으로 결집되지는 못했지만 시민 혁명의 선두에 선 행동대로서 그리고 그 이념을 공급하는 두뇌 집단으로서 대학생들의 사회적 비중이 인정받게 된 것은 4월 혁명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생들은 自由民主主義의 기본 원리를 重視했고, 집권 세력이 이 原理를 무시한 채 獨裁·獨善의 길로 나아갈 때 이를 과감하게 비판하고 그에 저항하였다. 기성 세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젊은이답게 비판을 퍼부었다.

'60년대 대학생들을 움직인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信念뿐만 아니라 統一을 指向하는 강렬한 民族意識이기도 하였다. 이미 4월 혁명 당시 남북 통일의 전초로서 大學生會談을 판문점에서 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남·북한 간의 전쟁이 끝난 지 겨우 7년밖에 안 된대라서 이들의 운동은 冷戰이데올로기의 벽에 부딪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통일 논의는 20년이 훨씬 더 지난 '80년대말에 이르러 후배들을 통하여 더욱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음을 볼 때 4월 혁명 주도 세력의 선각자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60년대 학생운동이 겪은 또 하나의 분수령은 韓·日 國交正常化를 반대하는 일련의 시위 사태였다. 지금으로서는 그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60년대 중엽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에서 폭발한 민족 감정에는 대단한 것이 있었다. 당시의 시위는 反日感情에다가 軍部執權勢力에 반대하는 감정까지 합쳐진 것이었다. 이

렇듯 '61년 집권 세력은 끊임없이 그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었다.

'69년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固守하기 위한, 이를테면 護憲運動이 두드러져 보였다.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政權의 治績이 꽤 인정받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長期執權을 지향하는 一人獨裁는 그러한 治績을 딛고 억지로 헌법을 개정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완강히 저항하였지만 4·19 때와 같은 市民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지는 못한 가운데 집권 군부 세력의 改憲을 분쇄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骨幹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뚜렷한 民主意識이 表出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일이 중요하다. '60년대를 통틀어 학생들의 社會意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3. '70년대 大學生의 意識構造

'70년대는 경제 구조가 점점 高度化되어 가는 일방 정치적으로는 全體主義의 공포가 파급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크게 보아 두 가지 歷史的 使命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는 이른바 維新體制로 일컬어지는 軍部の 全體主義的 統治에 制動을 걸고, 지배 구조를 의회민주주의의 盤石 위에 올려 놓는 작업이었다.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에 따른 社會 不平等의 構造를 시정하는 일이었다. 前者의 작업은 民主化 鬭爭을, 後者의 투쟁은 社會正義 실현을 위한 현실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70년대 대학생들은 이 두 가지 역사적 課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 어느 층보다도 더 적극적이었다. 그만큼 그들의 의식은 先進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70년 11월,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노동운동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분신 자살한 사건은 分配正義를 위한 '70년대 사회운동의 起爆劑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80년대에까지도 노동운동에 深遠한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大學 캠퍼스와 청와대로 이어지던 학생운동의 鬭爭軸은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基層民衆의 生活

現場으로까지 연장되기에 이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복한 가정 출신인 대학생들이 社會 下層으로부터 오는 비판과 질구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텐데” 하고 부르짖은 전태일의 목소리가 대학 지식의 양심의 문을 두드려 연 쇠이었다. 기독교학생연맹과 각 대학 학생회가 노동계급의 비참한 生活相에 주의를 돌리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 조사와 夜學, 貧民意識化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도 역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0년대 대학생의 저항 의식을 형성한 것은 '72년에 성립한 이른바 維新體制였다. 韓國的 民主主義라는 語不成說의 體制論理 위에 선 이 全體主義體制는 公安機關의 조직적 폭력 수단을 동원한 공포의 체제였다. 그 당시 야당은 여당의 들러리나 마찬가지였고 노동조합 역시 정권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安保를 빙자한 白色獨裁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이라고는 敎會와 學生밖에 없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그들의 독특한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고 즐기차게 저항해 나아갔던 것이다. 당시 학생운동은 자칫하면 투옥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만큼 철저히 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반독재 투쟁의 烽火를 올린 하였던 것이다. 維新時代를 살아간 학생운동의 主役들은 '60년대 이래 오늘까지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그만큼 그들의 저항력도 끈질긴 것이었다.

'60년대 학생들의 의식이 典型的인 엘리트意識이었다고 한다면 '70년대 학생들의 의식 가운데는 엘리트 의식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그대신 그들은 基層民衆과 生活世界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4. '80년대 大學生의 意識構造

'80년대 대학생의 의식 속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脫冷戰意識이다. '80년 光州民衆抗爭의 폭력적인 진압을 계기로 해서 外勢의 억압 논리에

세삼 눈뜬 '80년대 대학생들은 강인한 의지를 갖고 外勢에 저항하여 왔으며, 그 자연적인 귀결로서 南北統一을 지향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폭력 수단을 동원한 體制側에 대해 역시 일정한 정도로 對抗 폭력 수단의 사용까지도 불사한다는 전투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다. 投石과 화염병은 이러한 의식이 만들어 낸 示威手段이다. '70년대에는 감히 생각도 못하던 화염병이 '80년대에는 하루에도 수천개씩 제작·투척된다. 물론 공권력의 시위 진압 장비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강되어 왔음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에 대항하여 또다른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학생들의 의식은 바뀌어 왔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에는 물론 '80년의 光州 대학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광주에서의 그 끔찍한 장면들을 회고한다면 그 이후 학생들이 무기를 손에 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다. 폭력 행사를 싫어하는 우리의 文化的 傳統은 물론 무기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학생운동의 테러리즘화를 막아 주고 있다 하겠다. 西歐나 日本의 경우 '60년대말의 과격한 학생운동이 '70년대에 들어서서 잠잠해지는 대신 그중 가장 과격하고 혁신적인 세력이 테러리스트로 화하여 오늘날까지도 地下에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나라 '80년대 학생운동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온건한 이념을 지향하고 있음은 꼭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80년대에 들어서서 대학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대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의 문은 매우 좁은 것이었고, 그야말로 선택된 자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방대한 재수생 수를 낳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처 방안으로 대학 정원을 대폭 늘린 결과 이제 우리 사회는 130여 만명에 이르는 각급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괄하는 高學力社會가 되었다. 人口 규모에 비교할 때 이러한 대학생 수는 西歐의 공업 사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다. 대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학생 사회 자체를 大衆社會化하는 결과를 낳기

도 하였다. '70년대까지 어느 정도 同質的이던 대학생 사회가 '8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흐름을 內包한 채 학생들 상호간에 匿名性과 孤立性이 증대해 가는 추세다. 한편에서는 數에 힘입어 정치·사회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압력 집단으로 대두하는 반면에 학생 사회 내부에는 分節化·多樣化하는 兩面性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까지의 대학생들이 농촌적인 성장 배경을 지닌 데 비해 '80년대 학생들은 점차로 都市的인 성장 배경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도 학생 사회 내부의 다양화 경향과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동안의 경제 성장에 따른 富의 偏重化가 대학생들의 경제적 지위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학생들 내부의 貧富隔差도 커졌다. 그리하여 방학중에 몇 백만 원씩 쓰면서 海外研修를 가는 학생들이 생겨나거나 하면 등록금 조달을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졸업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자본제적 축적 논리에 편승하여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미리부터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유복한 대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졸업과 동시에 失業의 위기에 직면하고 설사 취업하더라도 中産階의 下部에서 相對的 貧困感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많다. 따라서 학생 사회 내부에서도 現狀態대로의 또는 장래를 내다본다는 의미에서 서로 다른 立場과 世界觀이 형성된 객관적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 내부의 사회경제적 地位差는 사회 문제에 대한 進步的 見解와 保守的 見解의 對立을 낳을 가능성을 誘發하는 것이 通例이다. 특히 現狀(status quo)을 是正 내지는 改革하고자 하는 集團的 行動에 있어서 학생들 내부의 立場差는 潜在的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80년대 대학생 사회를 꿰뚫어 온 民衆民主主義의 熱氣는 학생 사회 내부의 이와 같은 立場差가 집단적으로 表出되는 일을 어느 정도 막아 주고 있다. 그러나 학생 시위에 동원되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실 문제에 대한 집단적 의사 표시를 계기로 한 立場差의 表出은 이미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80년대 대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도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도 말했듯이 '80년대 학생운동은 冷戰論理를 打破하는 데 과감성을 보였고 그 노력에는 어느 정도 結實이 뒤따랐다. 北方外交나 남북 군사 대결 위협의 감소 등은 그러한 결실과 同一線上에서 이야기될 성질의 것이다. 특히 外國軍隊의 주둔이나 외교적 압력 또는 무역 제재 조치 등에서 '80년대 학생들은 反外勢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현실 정치에 상당한 압력을 가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마당극, 민속극, 농악, 민요 등 傳統的인 예술 표현 양식을 캠퍼스 예술의 主流로 만들어 왔다. '60, '70년대 학생 축제 때 기묘한 서양 민청을 단 경음악단이 반주를 맡던 장면과는 상당히 다른 土俗的인 風物이 '80년대의 캠퍼스를 수놓고 있다. 그간의 경제 성장을 딛고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葢蓋을 다져 그것이 文化的인 創造行爲로까지 연결된 모습이다.

그러나 '80년대 학생 의식에는 兩面的이고도 相互矛盾된 모습이 있다. 理論的인 進歩性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미하는 상대적 保守性과 반드시 舍致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것과 土俗的인 것에 대한 애착은 경제 위주의 對外開放戰略과 서로 어긋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경제적인 의미의 대외 개방은 문화적인 차원의 폐쇄성과 장기적으로는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土俗的인 것에 대한 애착이 곧 폐쇄적 문화 의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傳統과 外來的인 것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兩者間에는 긴장과 모순이 따르게 마련이다.

5. 大學生 意識의 將來 展望

사회가 어차피 산업 사회로 탈바꿈해 가고 있고, 그만큼 국제 사회의 一員으로서의 한국 사회라는 생각이 사회 각 부분을 꿰뚫게 될 전망이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 갈 전망이고, 分配에 둘러질 果實은 더욱 키지게 되어 있다. 그에 비해 公正蓄積과 公正分配의 論壇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분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잠재력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대학생들은 그 갈등의 잠재력을 표현하는 일에 노동 계급과 더불어 계속 주축이 될 것이다. 支配構造의 合理化를 의미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당분간은 관철되지 못한 채 정치는 계속 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세대 현실 정치의 主役인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생들의 政治意識이 계속 적극적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文化的으로는 학생들이 現代的이고 西歐的인 것, 産業社會的인 것을 어떻게 傳統的이고 土俗的인 것, 農耕社會的인 것과 어울리게 해석해 갈지가 궁금한 과제다. 既成世代와 젊은 世代間의 利害對立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해 갈지 궁금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既成文化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데카당적인 허무주의에 젖기보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복지 국가 체제를 지향하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文化生活을 가꾸어 갈 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大學生들의 의식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하겠다. *